

화해와 조화의 윤리학

-다문화적 지구적 미래를 위한 하나의 이념으로서¹⁾

신 옥희 (이화여자대학교 명예 교수)

【요약문】 이 논문은 화해와 조화의 윤리학을 다 문화적 지구적 미래의 여성해방 운동을 이끌어 갈 하나의 이념으로서 제시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화해와 조화의 윤리학의 모델로서 한국 불교의 대표적 사상가 원효의 대승불교적 일심의 윤리학과 서양의 여성철학자 이리가라이의 성차의 윤리학을 선택하여, 이 두 사상 사이의 만남의 가능성과 그 페미니즘 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 글에서 원효의 일심의 윤리학과 이리가라이의 성차의 윤리학이 화해와 조화의 원리를 강조하는 윤리학이라는 특성을 공유한다는 점을 제시 하였다. 그리고 이 두 윤리학이 공유하는 화해와 조화의 윤리학이 전 세계의 다양한 페미니즘 운동의 흐름들이 함께 지향해 나아가야 할 공동의 지평으로서 페미니즘 이론의 미래적 전개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점들에 대하여 밝혔다. 또한 원효의 일심의 윤리학과 이리가라이의 성차의 윤리학에 함의되고 있는 바와 같은 화해와 조화의 사상을 다문화적 지구적 미래의 공동의 이념으로 삼을 수 있다면, 동서의 다양한 여성운동의 파트너들이 상호적 인정과 협동 속에서 각자의 목표를 향해 활동하는 열려진 공간으로서의 페미니즘 적 세계 공동체 건설이 가능할 수 있음을 논했다.

주제어: 일심, 성차, 차이, 인정, 화해, 조화

1) 이 논문은 제13차 국제 여성 철학자 대회 학술 심포지엄(2008, 7, 27-29)에서 기조강연 논문으로 발표된 것임

I. 들어가는 말

이 논문에서 필자는 화해와 조화의 윤리학을 다문화적 지구적 미래의 여성해방 운동을 이끌어 갈 하나의 이념으로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이 논고에서는 화해와 조화의 윤리학의 모델로서 동양의 대승 불교적 보살도 윤리학, 특히 한국의 대표적 불교 철학자로서 오늘날까지 계속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원효(元曉, 617-686)의 일심 사상과 현대 서양의 여성철학자 루스 이리가라이(Luce Irigaray)의 성차의 윤리학을 선택하여 그들 사이의 만남의 가능성과 그 페미니즘적 의의를 고찰하였다. 오늘날 서양의 여성주의 철학의 대표적인 흐름은 크게 시몬느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 이후 서양의 페미니즘을 주도해온 구성주의적 접근의 연장선에서 젠더의 문제에 접근하는 영미 계통의 젠더 페미니즘과 여성적 글쓰기를 통하여 가부장제적 여성 지배 및 여성 억압의 문화적 기반 자체를 해체시키고자 하는 프랑스 계통의 여성적 글쓰기 또는 소위 성차의 페미니즘이라는 두 개의 양대 조류로 요약할 수 있다.

오늘날 영미 계통의 젠더 페미니즘 이론에서는 남녀 젠더의 구분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성 억압적이라는 사실을 천명한 버틀러(Juith Butler)의 수행적 젠더 이론이 활발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고, 프랑스 계통의 여성적 글쓰기 페미니스트들 중에서 여성의 자아 정체성의 이론적 기초를 성차에 근거 지우고자 하는 이리가라이의 성차의 윤리학이 유럽뿐만 아니라 영미의 여성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논쟁을 유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양극적인 두 입장들 사이의 조화로운 종합을 시도하는 저술들도 나타나고 있다.²⁾

한국의 여성 철학자들은 유럽의 페미니즘보다는 영미 계통의 페미니즘

2) Alison Stone(2006), *Luce Irigaray and the Philosophy of Sexual Differ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이론에 더욱 친숙해 있고, 이리가라이의 성차의 윤리학보다는 더 진취적이고 급진적으로 보이는 영미의 젠더 페미니즘, 특히 버틀러의 이론에 경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문학 비평의 영역에서는 물론, 여성학 이론의 영역에서도 이리가라이의 성차 이론은 여러 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고, 그의 저술들의 상당 부분이 번역되어 있다. 한국인으로서 동양의 문화와 종교의 전통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해온 필자에게 유교와 불교, 도교 등 동양 문화의 전통은 여성과 남성의 돌이킬 수 없는 차이를 강조하면서, 다르지만 평등한 두 성 사이의 상호 주관성 속에서만 남성과 여성사이의 참된 사랑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리가라이의 성차의 윤리학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동양의 정신적 전통을 형성해 온 유교와 불교는 타자들과의 관계로부터 분리된 독립적인 개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유교와 불교에서 개인은 상호 의존적, 유기적 전체의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그 한 부분으로서의 자기를 의식한다. 더 나아가서 동양 사회의 전통적인 사회적 관계의 구조는 분열과 대립이 아닌 조화와 통일의 원리에 기초하여 형성되었다.

그러나 유교 전통에서는 사회 질서에서 소위 음양의 원리에 기초한 성차 별을 불변하는 우주 법칙으로 영구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그 전통 안에서는 현대 여성학에서 추구하고 있는 여성의 자아 정체성의 확립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므로 오늘날 다수의 여성학자들이 유교에서보다는 불교의 전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필자 자신의 관심도 여성학과 관련하여, 불교 사상에 더 많이 집중하게 되었다.

현대 여성학의 이론가들이 추구하고 있는 여성의 “강력하며 동시에 관계적인 자아”는 불교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것과 다름이 없다.³⁾ 불교적 존재 체험에 기초한 자아의식은 유교에서와 같은 가족 공동체적 자아 정체성이

3) Klein, Anne C.(1987), “Finding a Self”, *The Harvard Women's Studies in Religion*, Series vol. II, U.M.I. Research Press, Fall. 참조

아니라 ‘연기적(緣起的) 자아 정체성’이다. 그리고 불교적 정신 훈련은 자기중심적 자기이해 및 사물 이해로부터 해탈하여 모든 존재의 공성(空性) 또는 무아성(無我性)을 직관하는데 이르기 위한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존재의 공성(emptiness, Sunyata) 또는 무아성(無我性)은 모든 존재의 상호 침투적 상호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다른 개체들과의 불가분의 연결 속에서 인연(因緣)에 의해 발생하고 변화하고 소멸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의존 연기(dependent co-origination)’라고 한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존재는 다른 모든 존재들과의 상호 관련 속에서 상호 의존적인 존재를 가진다.

현대의 불교적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대승 불교의 의존 연기적인 무아적 자아 관을 여성학적 자아관의 철학적 기초로 삼는 학풍이 발전하고 있다. 현대 미국의 여성학자 앤 클라인(Anne Klein)을 위시하여 리타 그로스(Rita Gross), 수잔 그리핀(Susan Griffin) 등 수많은 서구의 여성학 이론가들은 분리와 대립, 개체성과 자족성을 강력한 자아의 근본적 구성 요소로 여기는 가부장제적 자아 정체성 개념 때문에, 성 차별주의적 여성관과 여성억압적 사회 현상들이 발생한다고 보고, 이러한 가부장적 정체성 개념을 비판하고 극복하는 것을 우선적 당면 과제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제의 수행을 위한 철학적 기초를 불교적 공(空)의 철학에서 발견하고 있다.

필자는 유교적 전통 안에서 여성의 정체성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어 본 적이 없는 한국 문화의 상황 때문에, 성차에 근거한 여성 정체성과 여성 주체성의 확립을 여성 해방의 기본 과제로 삼고자 하는 이리가라이의 성차의 페미니즘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리가라이가 그의 후기 저술들에서 동양의 인도 전통, 특히 힌두교와 불교의 명상 수행 및 자연관에 가까이 접근하면서 그의 성차의 윤리학이 지향하는 여성 해방 사상과 동양 사상의 근접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크게 감동했다. 또한 이리가라이의 저술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이리가라이의 성차의 윤리학과 한국의 대승 불교의 보살도 윤리 사이의 만남이 매우 생산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을 가지게 되었다. 이 둘이 만난다면, 이 두 사상의 힘들이 각각 더욱 강화되고, 그들의 이론적 한계들이 보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두 윤리 패러다임 간의 공통점을 살펴보면서, 이리가라이의 성차의 윤리학이 유교 전통에서 살아온 한국 여성의 정신성에 어떠한 보탬이 될 수 있을까를 고찰해 보고, 또한 이리가라이의 성차의 윤리학과 대승 불교의 보살도 사상, 특히 원효의 일심의 윤리학 사이의 만남에서 어떠한 상호적 변혁이 일어날 수 있으며,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두 윤리학의 만남이 다문화적 지구적 미래를 위한 새로운 페미니즘의 전개에 어떠한 이론적, 실천적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일심의 윤리학과 성차의 윤리학

1. 윤리의 근원과 목표로서의 일심과 성차

원효의 일심의 윤리학은 일심(一心)을 그 기본 개념으로 삼고 있으며, 이리가라이의 성차의 윤리학은 “성차(sexual difference)”의 개념에 기초하여 전개된다. 두 윤리 사상을 비교하기에 앞서서 우선 원효의 근본 개념인 일심과 이리가라이의 성차의 개념을 비교해 보고, 그들 사이의 공통점을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우리는 원효의 대표적 저술로 간주되는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와 「별기(別記)」의 내용을 기초 자료로 하여 원효의 일심 사상을 어느 정도 체계 있게 구성해 낼 수 있다. 원효의 일심 사상은 대승 불교적 각(覺)의 형이상학, 또는 각(覺)의 존재론이라고 할 수 있다. 원효는 그의 「대승기신론소」의 심진여문(心眞如門)에서 대승 불교적 각 체험을 이언절러적(離言絕慮)인 비대상적 진여(眞如)의 체험으로서 특징 지우고 있다. 또한 일심의 각 체험에서 도달되는 실재의 세계는 염정무이(染淨無二), 진속평등(眞俗平等)의

원융무애한 일법계(一法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각의 관점에서 보면, 무명(無明)에 의해 더럽혀진 불각중생(不覺衆生)의 마음이 곧 순정 무구(純淨無垢)한 본각진여(本覺眞如)의 마음이며, 번뇌에 덮여 불타고 있는 생노병사(生老病死)의 속세(俗世)가 그대로 번뇌의 흔적도 없는 불생불멸(不生不滅)의 열반(涅槃)인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일심(一心)의 체험이란 만법은 본래 모든 대립과 차별을 벗어나 있는 진여(眞如) 자체라는 것, 염정(染淨), 진속(眞俗)의 대립은 이것을 모르는 불각(不覺之心)에 의해 생기는 것임을 깨닫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원효의 일심 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원효의 일심사상은 단순한 이론적 관점에서 전개되는 존재론, 또는 형이상학적 사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불교적 구원의 실현을 위한 이론적 조작으로서 실천적이며 종교적인 의의를 갖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심이문(一心二門), 즉 진여문(眞如門)과 생멸문(生滅門)으로 전개되는 원효의 일심의 형이상학은 이연절려의 일심에의 득입(得入)을 방해하는 분별지(分別智)를 돌파하여 일심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는 이론적 방편(方便)이라고 하겠다.

원효의 일심 사상의 과제는 한편으로는 분별지의 무명(無明)에 매여 있는 인간의 일상적인 의식을 돌파하는 지(止)와 정(定)의 수행을 통하여 일심의 무분별지(無分別智)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현상 세계의 본래적인 모습을 일심의 관점에서 바로 꿰뚫어 보는 관(觀)의 수행을 통하여 현상의 세계 안에서 현상의 세계를 초월하여 진속평등의 원융무애한 일심의 세계에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원효의 대승불교적 일심의 윤리학은 자타불이(自他不二), 만물일여(萬物一如), 진여평등(眞如平等)을 체증(體證)하는 일심의 각(覺)체험을 그의 근원과 목표로 하는 윤리학이다. 원효에게 있어서 윤리적 실천의 근원과 목표는 인간의 본래적 자기, 절대무애(絕對無碍)의 주체성으로서의 일심(一心)이며, 본각진여(本覺眞如)이다. 그에게 있어서 일심본각(一心本覺)은 곧 지

혜와 자비의 윤리학으로서의 대승보살도 윤리를 기초지우고 정당화하는 대승 불교 윤리의 알파요, 오메가이다.

이리가라이의 성차의 윤리학의 기본 원리로서의 “성차”(性差)는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 사이의 “다름”을 지시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리가라이에 의하면, 우리가 남성과 여성의 “다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를 비롯하여 인간이 관여하는 모든 관계들의 의미와 양상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이리가라이는 “성차”는 우리 시대가 숙고해야 할 중요한 이슈들 중의 하나이며, “성차는 우리가 그것을 잘 숙고하면, 우리 시대의 구원이 될 수 있다”⁴⁾고 말한다. 성차의 문제는 우리 시대의 구원이 거기에 달려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는 뜻이 그녀의 이 말 속에 담겨 있다.

이리가라이는 “나는 한 여자이다. 나는 여성이라는 성을 가진다. 나는 여성이라는 성으로 구별되었다”⁵⁾고 말하면서, 자기가 “성적으로 구분”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이 그녀의 페미니즘 연구의 원동력이 되어왔음을 고백한다.

이리가라이의 “성차”의 윤리학은 남성과 여성은 각각 다른 성에 속한다는 것, 그리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환원 불가능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의 인정에서 출발하며, 그와 같은 성적 차이의 온전한 실현을 목표로 하는 윤리학이다.

언뜻보면, 동일성을 강조하는 일심의 윤리학과 차이를 강조하는 성차의 윤리학은 비교를 불허하는 대립된 입장에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잘 들여다 보면, 이 두 윤리 사상은 놀라운 만큼 서로 상통하는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4) Luce Irigaray(1984), *Éthique de la différence sexuelle*(이후로는 *Éthique*로 표기함), Les éditions de Minuit, p.13.

Luce Irigaray(1993), *An Ethics of Sexual Difference*(이후로는 *Ethics*로 표기함), Translated from the french by Carolyn Burke and Gillian C. Gill, The Athlone Press, p.5.

5) Luce Irigaray(1985), *This sex which is not one*(이후로는 TS), Translated by Catherine Porter, Cornell University Press, p.148.

뤼스 이리가라이 지음, 이 은민 옮김(2000), 「하나이지 않은 성」, 동문선, 195쪽.

무엇보다도 우선 이 두 윤리학이 공유하는 특징은 이들이 모두 해방 또는 구원의 이론적 방편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윤리학이라는 것이다. 원효의 일심의 윤리학의 배경을 이루는 불교 신앙의 관심사는 중생을 제도하여 깨달음에 의한 해탈에 이르게 하는 데 있다. 해탈이란 깨달음을 통하여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교적 해탈의 과정에서 윤리적 삶의 실천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원효는 불교의 소승과 대승의 율전(律典)들을 두루 연구하였으나 그의 윤리관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대승 불교의 보살계(菩薩戒)에 관한 경전들에 대한 원효의 연구와 주석들을 통해 대승 불교 보살도 윤리에 대한 그의 심오하고 폭넓은 견해들에 접할 수 있다. 원효의 일관된 계율관(戒律觀)은 일심에 바탕을 둔 유일관심(唯一觀心) 부주계상(不住戒相)을 강조하였고, 계율에 얽매이는 율법 중심주의를 배격하고 일심의 바탕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무애로운 윤리행의 실천을 중시했다. 원효가 일생 동안 탐구한 윤리는 고정된 규범들에 중점을 두는 규범 윤리가 아니라 “인간을 참으로 인간답게 만들어 주는 보다 깊은 근원적 윤리, 즉 일심의 윤리였다.”

이리가라이의 경우에도, 그는 성차의 페미니즘에서 여성이 여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윤리적 탐구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그녀가 추구한 윤리적 행위의 원칙이나 규범들은 어디까지나 여성이 남성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차별과 배제, 억압과 착취의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여성을 해방시키기 위한 실천적 방편들, 또는 전략적 도구로서의 기능과 가치를 지니는 것이었다.

이리가라이도 원효와 마찬가지로 그의 성차의 윤리학을 하나의 일관된 체계로서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가 발표한 단편적인 글들 속에서 그녀의 여성 해방적 윤리 사상의 기본 개념들과 그들의 체계적 연관성을 구성해 낼수있다. 다행히도 이리가라이의 성차의 윤리학에 대한 다수의 체계적인 연구 저서들과 논문들이 출판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를 위한

자료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원효의 일심 사상과 이리가라이의 성차의 페미니즘을 그 내용면에서 가깝게 연결해 주는 것은 일심 사상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만물평등의 사상이다. 불교에서 깨달음에 이른 부처들에게 만물은 평등하다. 그것은 만물이 모두 같기 때문이 아니라 만물이 나타내는 차이와 다름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인정되고 존중되기 때문이다. 일심의 세계에서는 차이 또는 다름 때문에 차별을 받는 일도, 배제되는 일도 없다. 원효의 일심은 절대 공으로서의 초월자이면서 동시에 우주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들의 총체적 질서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심의 의존 연기적 상호 관계 안에서 어떤 존재도 독립된 존재로서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며, 예외 없이 모든 존재는 다른 존재와의 의존적 상호 관계 안에서 생성되고 소멸한다. 그리고 모든 존재는 자존하는 독립된 자아가 없는 무아(無我)이고 공(空)이라는 점에서 평등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김형효는 불교적 평등을 “차이의 동거”, “동거 속의 차이”로 해석하며, 평등과 연기, 그리고 해체 철학의 차연 등은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반대의 타자가 없으면 자신도 존립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이른바 평등이요, 연기법이고, 차연이다.” 다시 말하면, “평등은 차이의 동거와 같은 것이고, 연기법(緣起法)은 차연(差延)의 다른 이름이다.”⁶⁾

이리가라이가 주장하는 남녀 사이의 평등 역시 차이를 배제하는 동일성에 기초하는 자유주의적인 평등이 아니라 “차이의 동거”, “동거 속의 차이”를 허용하는 연기 법적 평등이다. 이리가라이는 자유주의적 평등은 여성과 남성을 중성화하는 것이며, 여성은 물론 남성까지도 자살에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와 같이 이리가라이의 성차의 윤리학은 원효의 일심의 윤리학의 경우처럼 윤리 규범의 지범(持犯)이나 가치 평가에 중점을 두는 규범 윤리학도 아니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윤리적 전략

6) 김 형효(2006), 「원효의 대승 철학」, 소나무, 77쪽.

에 관심을 두는 윤리학이 아니라 여성을 성을 가진 주체성으로서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근원, 즉 성차의 탐구이고, 그러한 근원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보다 더 심오하고 근원적인 윤리학이다. 다시 말하면, 여성을 이 세상에서 남성과 평등하게 관계할 수 있는 주체성으로 확립시켜 주는 근원으로서의 성차는 이리가라이의 여성 해방적 윤리학의 오메가이고 알파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고찰에서 분명해지는 바와 같이 대승 불교의 공(空)철학의 연기론적 존재관, 그리고 차이를 배제하거나 해소함이 없이 모든 존재의 동등한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대승 불교적 평등사상과 인간으로서의 여성 존재의 존재론적 성숙이 오직 타자들과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이리가라이의 상호 주관성의 철학, 그리고 차이가 인정되고 존중되는 평등 개념을 자신의 상호 주관적 자아 관에 기초하여 새롭게 수립하고자 하는 이리가라이의 성차의 윤리학 이론은 매우 현저한 이론적 친근성을 나타낸다.

2. 최고선으로서의 자비와 사랑

원효의 대승 불교적 일심 사상에서 ‘일심’은 단순한 각(覺)의 실재 자체일 뿐만 아니라 또한 절대 무집착의 대지혜와 절대무애의 대자비행을 일으키는 작용을 한다. 기신론(起信論)의 지지는 깨달은 자의 마음 속에 여러 가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일심의 작용을 맑고 깨끗한 지혜의 모습(智淨相)과 불가사의한 작용의 능력(不思議業用)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맑고 깨끗한 지혜의 모습(智淨相)은 법력(法力)의 영향에 의하여 진여를 수행하여 방편을 만족시킨다. 그 결과로 화합식(和合識)의 상을 파괴하고, 상속되는 마음의 상을 멸하여 법신(法身)이 드러나게 한다. 이 법신은 지혜가 맑고 깨끗한 것이다.

智淨相者謂依法力熏習 如實修行 滿足方便故 破和合識相 滅相續心相 頭現法身 智淳淨故⁷⁾ (大乘起信論疏記會本 41쪽)

세속의 생각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능력의 모습(不思議業用)은 맑고 깨끗한 지혜에 의하여 일체의 뛰어난 세계를 창조한다. 이른바 무량한 공덕의 모습은 영원하며 단절이 없다. 중생의 근본 능력을 따라 스스로 그들과 맞추어 여러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그들이 이익을 얻게 한다.

不思議業用者 以依智淨 能作一切 勝妙境界 所謂無量功德之相 常無斷絕 隨衆生根 自然相應 種種而現 得利益故⁸⁾

첫째로 중생의 마음 속에서 작용하는 법신(法身), 또는 재추진여로서의 일심, 즉 수염본각(隨染本覺)의 두 가지 작용 중 소위 맑고 깨끗한 지혜(智淨相)는 “화합식(和合識)”, 즉 대상 세계의 차별상에 속박되어 있는 경험적인 대상 분별의 의식을 “돌파”하게 해준다.

「대승기신론」에 기초하는 원효의 일심 사상은 한편으로는 중관 철학의 일체개공(一切皆空)의 실상관(實相觀)을 채택하여 연기적(緣起的) 존재로서의 만법의 공성(空性), 즉 무자성성(無自性性)을 밝힌다. 중관 철학의 공(空)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의 만물의 실재는 평등무이(平等無二)의 진여 자체로서 모든 상을 떠나 있고 이 우주 자연의 세계는 일미평등(一味平等)의 공(空)의 세계, 모든 차별을 떠나 있는 삼공(三空)의 바다일 뿐이다. 그러나 원효의 일심 사상은 또 한편으로는 유식 철학의 “삼계유심 유심소작(三界唯心 唯心所作)”의 사상을 들어, 현상 세계의 모든 차별상이 망념에 의해 생겨난 거짓된 환상임을 밝힌다. 이것은 대상적 차별에의 허망한 집착을 타파함으로써 중생들로 하여금 현상 세계의 차별상에 얽매어 자유를 상실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7) 은 정희 역(1991), 「원효의 대승기신론 소·별기」, 일지사, 174쪽.

8) 같은 책, 175쪽.

일심의 깨달음에서 발견되는 지혜, 즉 만법의 차별상에 구애됨이 없는 대승 불교적 깨달음의 한 측면으로서의 “맑고 깨끗한” 지혜는 이리가라이의 성차의 윤리학에서는 성차의 인정이 함의하는 깨달음, 즉 여성이 자신의 여성됨을 인정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자신의 자아의 한정성과 부분성에 대한 깨달음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깨달음은 여성이 자신의 여성적 자아를 보편자로서의 여성적인 것(the feminine)에 소속시킴으로서 여성의 자아 정체성을 한정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또한 남성적 성에 속하는 남성의 자아 정체성도 함께 한정하는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리가라이는 성차의 인정에 기초하는 자기-한정을 “부정의 노동(labor of the negative)”⁹⁾이라고 한다. 이때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그의 성에 속하는 몸을 가지고 있고, 또한 남성의 자아도 그가 타고난 성에 속함으로써 여성의 자아와 마찬가지로 한정되고 부분적인 자아임을 면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밝은 인식에 도달할 때, 마치 여성들만이 자연에 속하고, 자연적인 한계 때문에 남성과 같은 자유롭고 독립된 자아 주체성을 실현할 수 없다는 가부장적 사회의 통념이 거짓임을 알게 된다. 또한 남성의 몸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의 몸을 평가절하하고, 결합 있는 존재로 간주하는 견해들이 잘못된 편견임을 알게 된다. 더 나아가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 때문에 서로를 필요로 하며, 평등한 자격으로 관계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은 밝은 인식에 기초하여 남과 여 사이의 상호적 인정이 가능해지고,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화해와 공존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성차에 대한 밝은 인식은 남성과 동등한 여성적 주체성의 확립을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리가라이에 의하면,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인정한다(recognize)는 것이고, 내가 너를 존경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신

9) Luce Irigaray(1992), *J'aime a toi*, Éditions Grasset & Fasquelle, p.74, p.106, p.138.

Luce Irigaray(1996), *I Love To You*, Translated by Alison Martin, Routledge, p.36, 62, 105.

비, 나의 것이 될 수 없는 자유, 절대로 내 것이 될 수 없는 주체성 앞에 선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⁰⁾ 이리가라이는 이와 같이 인식된 사랑의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의 모델이 되고, 공동체를 위한 패러다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원효의 대승적 일심의 윤리학과 마찬가지로 이리가라이의 성차의 윤리학이 차이 속의 공존, 공존 속의 차이를 존중하는 화해와 공존의 윤리학이라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로 대승불교에서 보살들이 그들의 수행의 절정에서 나타내게 되는 소위 자비행의 능력 즉 소위 부사의업용(不思議業用)은 만법의 현상적 차별들을 넘어서 만물의 무자성(無自性)한 공성(空性)을 보는 맑고 깨끗한 지혜(智淨相)에 의해 밀받침된 능력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만물의 무자성한 공성을 깨달은 자만이 현상적인 차별상에 장애받음이 없이 자기를 열고 모든 중생을 차별함 없이 이롭게 하는 자비를 베풀 수 있다. 타자를 자기의 대상으로 이용하거나 희생시킴이 없이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하고 존경하면서 타자와 관계하는 타자중심적 이타행은 현상 세계의 차별상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자리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원효에 의하면, 차별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모든 만물이 그의 실상에 있어서는 형태와 차별을 초월한 진여(眞如)임을 깨닫게 될 때, 이러한 지혜의 완성에 의하여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의 새로운 주관, 화엄 철학적 사사무애(事事無碍)의 법계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차별과 형태의 한계를 상대화함으로써 나와 세계, 사물과 사물 사이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차별에 매임이 없는 자유롭고 융통성 있는 존재 가능성으로 해방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세상을 평등하게 대하고 두루 이롭게 하는 세속적 생각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능력(不思議業用)을 얻게 된다. 여기서 중생의 근본능력을 따라 그들에게 맞추어 그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무애로운 행위의 부사의(不思議)한 능력이란 타자 중심적 이타적 자비행의 능력을 말한다.

10) *Ibid.*, p.104.

자리(自利)에 의해 밀받침된 이타적 자비행의 구조와 특성은 이리가라이의 성차의 윤리학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성차의 윤리학에서 지향하고 있는 최고선으로서의 남녀 간의 사랑도 각자의 고유한 자아 정체성, 또는 주체성의 상호인정 위에서만 참된 사랑이 될 수 있다. 이리가라이에 의하면, 내가 한 성에 소속되어 있는 한 개인으로서 나의 존재의 한정성과 부분적 성격을 인식한다는 것은 내가 인류를 대표할 수 없다는 것, 내가 타자를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며, 타자를 나의 존재의 한계로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이리가라이는 언어적인 면에서 ‘간접화의 구문법(syntax of Indirection)’ 이라고 칭한다. 타자를 나의 대상으로 대상화하지 않으려면, 타자를 목적으로 대상화하는 타동사의 구문법이 아닌 간접화의 구문법이 필요하다고 한다. 가령, “I love you”라고 말하지 않고, 동사와 타자 사이에 “to”라는 전치사를 넣어서 “I love to you”라는 문장으로 간접화하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나는 너에게 사랑을 보낸다(I Love To You)」에서 상대방의 대상화를 방지하는 전치사 “to”의 기능을 여러 가지로 설명한다.¹¹⁾ 타자의 타자성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나와 타자의 관계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의 타자 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서로 관계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이리가라이는 주장한다. 사랑은 이 때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타자 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서로 상대방이 그녀(he) 혹은 그 남자(he)의 주체성을 완성할 수 있게 해주는 상호적 협동의 공간이 된다. 다시 말하면, 나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나의 주관성을 희생하거나 포기함이 없이 타자의 자기실현을 돕는 타자 중심적 이타 행을 실천할 수 있다.

이러한 남녀 간의 사랑은 이리가라이에 의하면, 다른 모든 인간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조화와 협동의 관계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원효의 보살도 윤리와 이리가라이의 성차의 윤리학은 인정과 화해, 조화와 협동의 윤

11) *Ibid.*, pp. 107-111.

리학으로서 특징지어질 수 있다.

3. 윤리적인 삶의 지도 원리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타자들과 함께 화해와 조화의 윤리적인 관계를 실천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가? 원효는 대승 보살들이 지켜야 할 보살계에 대한 독창적인 설명을 통해서 자리행에 의해 밀받침된 이타적 자비행의 실천을 완성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 원효의 일심의 윤리학과 이리가라이의 윤리학을 화해와 조화의 세계를 지향하는 윤리학의 두 모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이 두 윤리 체계의 공통된 윤리적 지도 원리는 어떤 것들인가? 두 윤리 체계에 공통되는 윤리적 지도 원리들을 “보살계”, 즉 대승 보살들이 그들의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계율로서의 삼취정계(三聚淨戒) 혹은 삼취계에 대한 원효의 독특한 해석들에 의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자리(自利)와 이타(利他)의 통일

원효는 이와 같은 대승 불교적 자비행을 특징짓는 소위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원리가 의미하는 바를 대승 보살도 윤리의 핵심적 지도 원리로서의 소위 삼취계에 대한 그의 독창적이고 기발한 비유적 해석들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대승 불교에서 보살계라 하면, 섭율의계(攝律儀戒), 섭선법계(攝善法戒), 섭중생계(攝衆生戒)를 의미하는 것이 원칙이다.¹²⁾ 원효는 그의 계율에 관한 연구서들 중의 하나인 「범망경보살계본사기(梵網經菩薩戒本私記)」에서 보살들이 지켜야 할 계율들, 즉 삼취정계(三聚淨戒) 또는 삼취계

12) 이 기영(1989), “원효의 윤리관” - 「보살계 영락 본업 경」을 중심으로, 김 지견 편, 『원효 사상의 철학 세계』, 대한전통불교연구원, 279-326쪽.

(三聚戒)의 뜻을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和衆生)이라는 대승 불교적 이상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로, 원효는 삼취계를 불성에 들어가는 문(門)으로 비유한다. 그리고 문이 가지고 있는 양면적 기능, 즉 나가고 들어오는 두 가지 기능에 비유하여 삼취계가 내포하고 있는 자리이타의 이중적 구조를 밝히고 있다.

삼취계로서 불성에 들어가는 감로(甘露)의 문(門)을 삼는다. 그런데 삼취계의 문에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들고난다는 뜻이 있으며, 이 문의 뜻은 섭율의계와 섭선법계는 스스로를 이롭게 하는 ‘들어가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섭중생계는 다른 이를 구제하여 주는 이타행이니, 이것은 ‘나가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¹³⁾

원효의 출입(出入)의 비유는 보살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계율, 즉 삼취계가 지향하는 지혜와 자비, 자리와 이타의 무애한 수행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기서 원효의 ‘출입의 비유’는 자리와 이타의 불가분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자리행 못지않게 이타행을 중시하는 대승적 보살도 윤리의 관점에서, 자리행에만 집중하고 이타행에 소홀한 감이 있는 이승(二乘)의 윤리관에 대한 원효의 비판적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원효는 그의 또 하나의 기발한 비유, 즉 ‘해와 달’의 비유를 들어서 자리와 이타의 어느 한쪽만 가지고는 완전한 보살도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만일 해만 있고 달이 없다면, 모든 식물의 싹은 마르고 타버릴 것이며, 만일 달만 있고 해가 없다면, 식물의 싹이 썩어버려 싹이 날 수 없는 것처럼, 섭율의계와 섭선법계만 지키고, 섭중생계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자기만을 이롭게 하는 지혜만을 닦을 뿐, 남의 해탈을 도와주는 이타행이 없으므로 소승의 이승과 같아서 무상보리의 풍부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섭중생계만을 지키고 섭율의계와 섭선법계를 가지지 않는 자는 이타 행만을 하

13) 심 재열(1983), 『원효사상』2, 윤리관, 흥법원, 139-140쪽.

고 자아의 본성을 깨달아 체득하는 자리의 수행이 결여된 수행이므로 도리어 범부나 다를 바 없게 되어, 이런 사람은 보리의 싹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원효는 자리행과 이타행에 똑같은 비중을 두고 있다. 자리 없는 이타행은 공허하고, 이타행 없는 자리행은 비생산적인 “메마른 지혜(乾慧)”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를 돌보는 일과 타인을 돌보는 일의 어느 한쪽만 가지고 윤리행의 완성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리가라이의 성차의 윤리학에서도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하는 두 당사자는 투철한 주체적 내면적인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둘 중 어느 한 사람이 주체적 내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에는 간주체적인 상호적 행동으로서의 참다운 사랑의 관계는 성립될 수 없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자신의 주체적 자아만을 내세워, 타자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에도, 참다운 사랑의 관계는 파괴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랑의 관계의 참다운 실현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주체적 내면성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며, 또한 서로 상대방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그 자신의 주체성의 완성에 도달하도록 서로 돕는 태도와 상호적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여성 해방 사상으로서의 이리가라이의 성차의 윤리학은 여성도 자유로운 자기 창조의 주체로서 살 수 있고,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며, 여성이 잃어버린 주체로서의 여성의 본래적 자기 회복을 위한 조건들을 모색한다. 그러나 이리가라이의 성차의 윤리학은 또한 성을 가진 주체성 안에 내포된 타자와의 관계들에 강조점을 두는 “관계”의 윤리학이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리가라이에 의하면, 인간은 일반적으로 남녀 양성 중의 어느 하나의 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개인은 자기가 성을 가진 존재임을 의식하자마자 자기가 소속한 성의 종(genre)적인 보편자와의 관계 안에 있는 자기를 의식하게 되며, 개체 인간은 성을 가진 자아로서의 자기와 관계하면서 동시에 또한 자기가 소속하는 성의 보편자와의 관계 속

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자기와 동일한 성에 속하는 타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성에 속하는 타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 자신의 삶을 영위하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에게 있어서 개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존재만큼이나 타자와의 관계가 그의 삶에 중요한 결정적인 조건이 된다. 이리가라이는 여성은 타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여성 자신의 완성을 위한 헌신과 함께 또한 그가 관계하는 타자들의 자아 완성을 위한 헌신을 동시에 수행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

이리가라이는 오늘날 우리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가족 질서의 위기와 쇠퇴는 부모들과 아이들에게 고통과 혼란과 절망을 안겨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고 가정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가정을 자연적 차원으로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성적 차이를 인정하면서 남성과 여성이 인격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문화를 구축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⁴⁾

더 나아가서 이리가라이는 지금의 것과는 '다른'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어머니와 딸의 관계, 여자들 사이의 관계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자들은 남성사회의 잣대로 서로를 평가하고 서로가 자기의 정체성을 긍정하지 못하도록 한다. 여자는 다 같다는 식으로 여성들을 동일성으로 환원하는 행위를 통해서 여성들은 여성들 자신의 가장 무서운 억압의 도구가 된다고 그녀는 주장한다.

특히 이리가라이는 여자들끼리의 관계 중에서 어머니와 딸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모녀 사이의 관계를 (어린 시절부터 무의식 속에 새겨 넣어진) 경쟁과 증오의 관계로 제시해 온 정신 분석 이론이 잘못된 것임을 밝히면서 모녀 관계의 새로운 이해를 위한 대안적 이론을 마련하고자 한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딸은 어머니를 외면하

14) 뤼스 이리가라이 지음, 이 은민 옮김(2000), 「동양과 서양 사이(Entre Orient et Occident)」, 동문선, 124쪽.

고 증오한다. 어머니에게 기대했던 중요한 성기를 어머니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프로이드의 이론에 의하면, 어머니에 대한 이 거부는 같은 이유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여자에 대한 거부를 일으킨다고 한다. 소녀는 남자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 어머니를 버려야 하고, 남자의 사랑을 얻기 위한 경쟁자가 되며, 이 모든 것이 어머니와 딸 사이의 사랑의 가능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⁵⁾

이리가라이는 프로이드의 이러한 이론은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아버지가 중심이 되는 가부장적 문화권에서는 딸이 자기 어머니와 자신의 관계를 결코 규정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녀에 의하면, 현대의 가부장적 가정의 사회, 문화적 기능의 논리에서 여자 아이가 자기 어머니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이리가라이는 모든 여자들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성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동일한 상황에 처해 왔으며, 여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이 어떤 것 이든 간에, 여자들은 모두가 똑같은 억압과 육체의 착취, 자신들의 욕망의 한결같은 부정을 감내해 왔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여자들은 자기들끼리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는 남성 위주의 사회가 그들에게 할당하고 교육시켜 온 위치와 역할, 행동들로부터 벗어나기를 시도하기 위해 여자들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이다.”¹⁶⁾ 다시 말하면, 남자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자들 사이의 분열과 경쟁을 강요하기 위해 제시했던 이론들과는 “다른” 형태의 여자들끼리의 관계를 발견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15) *Étlique* p.101, *Ethics*, p.102.

16) TS, p.164, 「하나이지 않은 성」, 214쪽.

2) 내수(內修)와 외수(外修)의 통일

원효는 그의 또 하나의 비유, 문을 닫고, 여는 비유를 들어서 내수(內修)와 외수(外修)의 통일이 참다운 자리이타적 자비행의 본성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함을 강조하고 있다. 원효의 “닫고 여는” 비유에서 “닫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삼취계 중에서 섭울의계와 섭선법계이며, 이 둘은 내수, 즉 개인들의 고독한 내면적 자기 수련을 지도하는 원리들이다. 나 이외의 어느 누구도 나 자신의 내면적 자기 수련을 대신 맡아줄 수 없다. 각각의 개인은 자기의 본래적 가능성으로서의 불성(佛性)의 성취를 위하여 생사와 번뇌를 끊어버리고, 이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자기를 해방하기 위한 고독한 투쟁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보살들의 원력에 의지하는 대승 불교라고 하더라도, 대중을 구할 수 있는 지혜와 자비의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수행자 자신의 정열과 믿음, 그리고 피나는 정진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원효는 그의 “닫고 여는 비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닫고 여는 두 가지 의미로 문을 삼는다. 만일 도적이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그래서 집 안에 있는 재물을 빼앗아가고자 할 경우에, 문을 닫고 걸어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물리치는 것과 같으니, 그러므로 닫는다는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 또 이르기를 열어 보이는 것으로서 문의 뜻을 삼는다고 하나니, 만일 뜻이 같은 지식과 도덕이 높은 선지식이 올 때에는 문을 활짝 열고, 맞이하여 또한 집안에 있는 재물을 풀어서 대접하나니, 그것은 바라고 원하던 반가운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 열어 보이는 것으로서 문의 뜻을 삼게 된다.¹⁷⁾

이와 같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원효의 “닫고 여는” 비유는 “자리이타”를 근본 구조로 하는 보살도 윤리의 두 요소 중에서 보살 자신의 윤리적 인

17) 심 재열, 『원효 사상』2, 윤리학, 140-141쪽.

격 완성을 지도하는 자리적 내수(內修)에 강조점이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살 자신의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다면, 자성청정한 법신을 중생에게 비쳐주는 보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소승불교에 대한 대승불교의 우월성은 소승에는 없는 이타적 자비행의 계율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타를 통한 자리, 자리를 통한 이타의 원융무애한 통일을 보살도 속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그 윤리적 이상에 있다.

이리가라이에 의하면 사랑하는 남녀의 사랑이 윤리적이고 생산적인 참다운 사랑이 되게 하는 조건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서로 상대방을 절대로 내 욕망이나 의지대로 처분할 수 없는 나의 타자로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대상화 작용을 정지시키는 것이며, 그에 의해 상대방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즉 능동적인 사랑의 주체로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상대방을 도와주는 상호 주관적인 협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자리이타의 무애로운 통일을 강조하는 원효의 출입의 비유를 상기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무애로운 상호적 협동의 공간으로서의 사랑의 집을 건립할 수 있을까? 이리가라이는 이러한 사랑의 실현이 단순히 남녀 간에 서로 끌리는 본능적인 욕망에 의해서 저절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리가라이에 의하면, 여자의 경우, 일정한 나이가 되면, 아이의 어머니가 될 수는 있으나, 그가 말하는 윤리적이고 생산적인 사랑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인격을 지니게 되는 것은 나이가 드는 것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 자신의 정신적인 각성과 문화적인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 원효의 “닫고 여는” 비유에서 나타나는 내수(內修)의 중요성의 강조와 별로 다르지 않은 윤리적 지침을 이리가라이의 성차의 윤리학에서도 발견하게 된다.

이리가라이의 성차의 윤리학에서도 우리는 참다운 사랑의 주체로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여성적 의식의 각성과 함께, 여성 자신의 영적, 문화적 자기 승화의 기술과 훈련, 그리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기 변혁의 작업이 강

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성은 지금까지 능동적인 사랑의 주체로서 살지 못하고, 아이의 생산을 위한 도구로서, 그리고 남성의 욕망 충족의 피동적 대상으로서 살아 왔기 때문에, 여성의 자기의식은 가부장적 남성 중심적인 여성 이해에 물들어 있고, 자연의 영역에 갇혀 살아온 결과, 남성들이 누려온 특권적인 정신적, 문화적인 삶의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성은 여성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자연에 속하는 몸과 욕망만 있고, 정신과 영혼은 결여되어 있는 존재로 취급되어 왔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가부장적 여성억압의 전통 속에서 여성의 자기의식도 왜곡되고 무력화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아리가라이 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 해방 이론가들의 일반적 견해이며, 여성 해방 운동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리가라이는 그의 「나는 너에게 사랑을 보낸다」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서 기능하는 남녀의 관계를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고, 남녀의 상호적 타자성을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과제”¹⁸⁾라고 말한다. 이리가라이는 남녀 사이의 차이를 사고하는 전통적 방식을 전복하는 방식으로 그의 성차의 사유를 시작한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남성에게 의해 강제로 여성에게 강요된 “여성성(femininity)”의 개념을 뒤엎고, 여성의 젠더와 여성적 본성에 합치하도록 “여성적인 것(the feminine)”을 정의하려고 노력한다. 그녀에 의하면, 여성의 해방, 그리고 인류의 해방은 종으로서 여성(a female generic)의 정의 즉 여성의 젠더, 여성의 종적 정체성에 대한 정의에 달려있다. 그리고 우리는 여성적 젠더를 지시하는 ‘그녀(She)’에 대해 적극적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그녀는 주장한다. 성차의 인정과 존중이야말로 주인/노예의 관계에서 벗어난 남녀 관계 및 인간관계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여자로 태어난 사람은 그녀의 성과 젠더에 적합한 문화를 필

18) Luce Irigaray, *J'aime à toi*, pp.105-106.

Luce Irigaray, *I Love To You*, pp.62.

요로 한다. 그러한 문화에 의해서 여성은 그의 자연적 정체성을 포기함이 없이 자기 자신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리가라이에 의하면, 이 과제를 위해서 남자와 같아지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성은 추상적 보편자 속에서 그 자신의 자연적, 정신적 실재를 해소시키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리가라이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여성의 과제는 성을 가진 존재(sexed beings)로서 자연으로부터 문화에로 나아가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리가라이는 여성은 아직 시민의 자격으로서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고, 남성의 성적 본능, 욕망, 혹은 아이의 필요성 등에 따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육체-자연으로 취급되고 있을 뿐, 시민으로서의 개인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여성에게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은, 그녀에게 강요된 단순한 자연적 정체성으로부터 시민적 정체성으로 나가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단지 가부장제 세계를 비난하고, 여성이 남성과는 다른 존재임을 확신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육체-자연의 지평 너머로 나아가기 위해 “여성 은 여성으로서의 자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리가라이에 의하면, 여성 해방 운동은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남성 세계에 대한 비판과 반대, 그리고 남성들과 평등한 사회적 혜택을 성취하는 차원을 넘어서 여성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신시키고, 그에 의해 여성에게 아직 부족한 주체적 내면성을 구축함으로써 인류의 절반과의 연대를 실현하는 과제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¹⁹⁾

더 나아가서 여성에게 있어서 여성에게 고유한 주관성의 구축은 자신의 주체적 자아 정체성을 보전하면서 다른 성의 타자와 관계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리가라이에 의하면, 평등주의자나 분리주의자의 전략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여성이 주체가 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수평적으로 자기를 초월하는 타자, 즉 남성과의 참된 사랑의 관계 안에

19) 루스 이리가레이 지음, 「동양과 서양 사이」, 119쪽.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3) 방편지(方便智, Upaya, Expedient Means)의 강조

원효의 대승 불교적 일심의 윤리학에서 보살들이 구비해야 할 기본적 덕목 중의 하나는 소위 방편지(方便智)라고 하는 것이다. 대승 불교의 자비의 윤리를 특징짓는 또 하나의 측면은 보살계 중에서 십중생계에 의해 지도되는 무애로운 방편지이다. 방편지는 타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타행의 실천에서 일반적인 행위의 규범들을 넘어서 그때그때의 타자의 특수한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방편지의 개념이 의미하는 바는 대승 불교 윤리의 높은 수준에서는 타자에 대한 자비에 의해 동기 지워진 것이라면, 범계(犯戒)도 책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승 불교의 경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비의 방편으로서의” 보살의 일탈을 허용하고 있다. “타인의 특별한 이익을 알아보는 자에게는 특정한 계율을 어기는 일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²⁰⁾ 대승 불교에서 중생 구제의 윤리적 이상은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감정 뿐 아니라 타자의 구체적 상황과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밝은 지혜와 무애로운 대처 능력을 겸하여 가질 때, 비로소 완전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범계도 불사하고, 타자를 괴롭히는 일도 거침 없이 수행하는 보살의 무애로운 자비행은 바로 이와 같은 대승 불교의 타자 중심적 행동 원리와 무애로운 방편지에 의해 밀반침되는 것이며 공 철학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이다.

이리가라이는 그의 여성 해방 운동에서 여성의 권리로 남성의 권리를 대체하는 일이나 정치적 전복을 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그녀에 의하면, 그러한 ‘전복’은 여자들이 바랄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

20) Keown, Damien(1992), *The Nature of Buddhist Ethics*, Macmillan, p.150-151.

신옥희(2000), 「일심과 실존」,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196-7

하나의 남근적 권력 투쟁일 뿐, ‘여성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평화적 공존 같은 것을 꿈꾸는 것도 아니다. 그녀는 “평화적 공존이란 없다고 생각 한다”²¹⁾고 말하며, 페미니스트로서의 그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투쟁에 임하는 그녀의 태도에 있어서 매우 애매한 입장을 취한다. 위트포드가 지적하고 있듯이, 정치의 현장에 들어가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²²⁾ 여기서 그녀가 우려하는 위험은 남성 지배적인 조직의 입장에 동조하기를 수락할 때, 여성은 “남성”과 같게 되고, 남성의 세계에 동화됨으로써 여성으로서 아무 것에도 기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²³⁾ 이와 같은 이유에서 그녀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투쟁 전략에 가담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녀는 데일리(M. Daily)의 급진적 페미니즘에 있어서와 같은 분리주의적 투쟁 전략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부장적 남성 집단과 여성적 자매 집단을 적대적인 투쟁의 관계로 대립시키는 전투적 분리주의는 다른 성과의 조화로운 관계맺음 속에서만 여성적 자아의 성취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그녀 자신의 성차의 윤리학의 근본 노선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가령 이리가라이의 여성 해방 운동의 전략 중의 하나인 여성적 글쓰기의 전략은 권력의 획득이나 전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에 의하면, 여성적 글쓰기, 즉 “여성적으로 말하기”,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의 공간을 여성인 ‘타자’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일을 시도하는 것이다.”²⁴⁾ 남성들의 지배적인 언어활동이 너무나 강력해서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있는 장소 이외의 다른 곳에서는 감히 여성적 말투로 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²⁵⁾ 그녀에 의하면, 여성적 말투로 말하기, 여성적 글쓰기는 담화 체계의 전복과 같은 것으

21) TS, p.130. 위스 이리가라이 지음, 「하나이지 않은 성」, 171쪽.

22) TS, p.165.

23) Margaret Whitford(1991), *Luce Irigaray: Philosophy in the feminine*, New York & London: Routledge, pp. 12-13.

24) TS, p.135, 「하나이지 않은 성」, 178쪽.

25) 앞의 책, 177-178쪽.

로, 여자들로 하여금 남성들에게 말을 걸 수 있게 하는 전략적 방법이다.²⁶⁾ 이리가라이에 의하면 여성적 글쓰기가 지향하는 여성적인 것의 이미지화 작업도 현재로서는 남성적 언어 체계 안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아직 여성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성은 담화의 주도권을 여성과 공유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적 글쓰기의 작업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고통스러운 것임을 고백한다.²⁷⁾ 그녀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전략인 새로운 여성적 이미지의 상징화작업도 또한 남성적 상상력에 의해 주도되어 온 상징계의 기반을 전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여성적 욕망에 대한 담화를 금기시하는 가부장제적 담화 체계 안에서 그녀의 상징화 작업 역시 만만치 않은 장애에 직면하고 있다. 더욱이 남성과 구별되는 여성의 “다름”을 언어와 상징 안에 새겨 넣고자 하며 또한 그러한 여성의 다름이 인정되고 받아드려 질수 있는 “다른” 세상을 지향하여 움직이는 그녀의 장기적인 안목은 페미니즘 진영의 사람들에게조차 유포되어 온 것으로 비판받고 도외시 당하기도 한다.

이리가라이로 하여금 남성 사회의 침묵과 경멸적 무시의 태도보다도 더 큰 실망과 좌절을 느끼게 하는 것은 여성 해방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는 여성 해방 운동가들 사이의 분열과 상호 배타적 적대 관계의 현실이었다. 이리가라이는 여성이 착취당하고, 희생을 강요받고, 여성이 남성들끼리의 거래의 대상으로 상품화되고 있는 지금의 가부장적 역사와는 “다른”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려면, 여성들끼리의 관계가 지금과는 다른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이 자존심과 위엄을 포기함없이 다른 성과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여성 해방 운동은 여성들 사이의 사랑의 연대성이 구축되지 않고서는 그의 목적하는 바를 성취할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이리가라이는 여러 다양한

26) 앞의 책, 179쪽.

27) 앞의 책, 207쪽.

서양의 정치적 이론적, 여성주의의 한계들을 절실하게 의식하면서 수평적으로서는 여러 문화들을 가로 질러서, 그리고 수직적으로는 각각의 문화들 내부에서 페미니즘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의식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도 비로소 페미니즘이 다문화적, 지구적 미래의 새로운 윤리학으로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일 페미니즘이 지구적 미래를 이끌어갈 기초적, 윤리적 원리가 되려면, 단순히 적은 수의 특권적 여성들을 위한 이론적 도구로서 봉사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²⁸⁾

이와 같은 이유에서 이리가라이는 분리주의와 여성문화를 주장했던 그녀의 「하나이지 않은 성」의 사상적 노선을 바꾸었다. 그리고 그의 페미니즘을 그의 성차의 윤리학 안에 분명하고 일관성 있게 “지금 여기, 그리고 모든 문화들 안에 존재하는” 성차 안에, 즉 두 젠더의 구분 안에 근거지웠다. 성차는 현실적이고 보편적인 것이고, 따라서 성차의 문제는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리가라이의 성차의 윤리학이 과연 그녀가 주장하듯이 다문화적 지구적 미래의 윤리학으로서 봉사하기에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가령 슈와브는 이리가라이의 성차의 윤리학이 이러한 한계들을 지니면서도 하나의 새로운 지구적 윤리학을 위한 기초로써 봉사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그러나 주디트 버틀러는 이리가라이의 성차의 개념은 우선 여성들 사이의 차이들을 배려할 수 없다는 것, 즉 남성이나 여성의 어느 범주에도 속하는 않는 여성들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성차의 윤리학은 성차의 문제에만 관심을 집중함에 따라 성차와는 다른 근거에서 세계의 많은 여성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성 억압과 착취의 현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한계를 지적한다.²⁹⁾

28) Gail Schwab, “Sexual Difference as Model: an Ethics for the global future”, *Diacritics* (28) 1, Spring, p.76.

이리가라이는 그녀의 성차의 페미니즘이 추구하고 있는 전략들이 그녀 자신의 문화와 시대의 특수성에 의해 한정되어 있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녀 자신의 성차의 윤리학은 각각 다른 문화와 전통, 그리고 개인들의 특수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이 그들 자신의 문화와 인종, 계급,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에 알맞은 페미니즘을 전개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기초 이론, 또는 실천의 도구로서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여기서 우리는 대승 불교의 보살도 윤리에서 말하는 대중 구제의 자비행의 필수 조건으로서 방편지(upaya)의 개념과 이리가라이가 강조하는 페미니즘 이론의 전략적 기능과의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페미니즘 이론들은 여성 해방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때에 따라 누구에게나 유통성 있게 사용 가능할 수 있는 방편들로서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페미니즘 이론가들과 실천가들은 여성 해방을 위한 기초 이론과 전략들을 창조하고 보편적으로 유통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페미니즘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명의 수행을 위한 동반자들로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인정하며 함께 협동하는 새로운 연대성, 즉 새로운 화해와 조화의 연대성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 점에서 이리가라이는 대승 불교의 보살도 윤리의 방편지의 지혜에 매우 가까이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II. 화해와 조화의 윤리학을 향하여

우선 원효 사상의 핵심 개념인 일심과 이리가라이의 주제적 개념으로서의 성차의 개념은 그들의 개념상의 의미로 본다면, 분명히 서로 합치하기 어

29) Pengcheah and Elisabeth Grosz(1998), "The Future of Sexual Difference: An Interview with Judith Butler and Drucilla Cornell", *Diacritics* (28)1, Spring, p.21.

려운 대립을 나타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고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원효의 일심의 윤리학과 이리가라이의 성차의 윤리학은 화해와 조화의 원리를 강조하는 윤리학이라는 특성을 공유한다. 그리고 또한 동양과 서양의 이 두 윤리 모델은 이들 각각이 지니는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원효에게 있어서 일심의 깨달음 이란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還歸一心之源)” 이고,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원론적 대립의 관계가 아닌 주관과 객관, 생사와 열반, 부처와 중생이 “같은 것도, 다른 것도(非一非異) 아닌 소위 즉(卽)의관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나타난다. 불교에서 말하는 “생사 즉 열반”, “중생 즉 부처”라는 표현은 바로 이와 같이 두 항 사이의 대립이 해소되고, 두 항 사이의 새로운 연결이 이루어지는 각(覺) 체험의 구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생사와 열반, 중생과 부처 사이의 상호 연결을 매개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일심의 각(覺) 체험이다.

다름과 차이에 속박됨에 없이 중생과 부처, 생사와 열반, 이 언덕과 저 언덕 사이를 무애롭게 연결시키고 통일하는 대승 불교적 일심의 깨달음은 대승 보살도 윤리에서 모든 중생을 차별 없이 두루 이롭게 하는 무애로운 보살행의 실천을 가능케 하는 정신적 기반이 된다. 그러나 현상 세계의 모든 차별상을 넘어서 모든 일심의 근원으로 돌려보내는 원효의 일심 사상은 차별상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무아, 무집착의 정신적 경지를 실현하는 일에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차이와 다름 때문에 차별받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절실한 현실들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대처 능력을 결여하게 된다는 이론적 한계가 있다.

불교와 페미니즘 사이의 대화를 시도하는 거의 모든 여성학자들이 제기하는 의문은, 이리가라이가 인도의 영성과의 대화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문과 대동소이하다. 불교적 페미니즘 이론의 구축을 시도하는 거의 모든 여성 철학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불교 전통 안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실천적 측

면과 불교의 근본적 비전 사이의 내적 모순에 관한 것이다.

그로스는 “이상하게도 불교는 불교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성별 스테레오 타입들과 성별 질서들에 대해서는 불교의 근본적 가르침들을 적용한 적이 전혀 없다”고 논평한다.³⁰⁾ 불교는 세속적 세계의 성차별의 관습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다는 것이다. Diana Paul도 그녀의 한 연구에서, 불교는 이론적으로는 성차에 얽매이지 않고 무성 성 또는 양성 성을 이상으로 하면서도, 실제적, 제도적 차원에서는 유교의 가부장제적인 성차별적 여성관과 성역압적 규율 및 제도들을 자연스럽게 차용하는 양상을 띤다고 논평하고 있다.³¹⁾

이에 비해서 이리가라이의 성차의 페미니즘은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당하고 억압받는 불의한 현실에서 출발하며, 이와 같은 불의한 현실의 시정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실천적인 경향을 지닌다. 그러나 그녀의 성차의 윤리학에서 성을 가진 자아의 초월은 종의 보편자로서의 자연적인 두 성의 존재를 절대적인 사실로서 전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른 성과의 관계에서 두 성의 환원 불가능한 “다름”을 미리 상정하고 출발한다는 점에서 이리가라이의 “성차”를 강조하는 입장은 원효의 공(空)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차이에 대한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평등 개념도 남녀 양성 사이의 평등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차별 이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차별들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이론이라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버틀러는 이리가라이의 성차의 개념이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여성성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게이들, 레즈비언들, 유색 여성들, 성 전환자들 등)

30) Rita Gross(1993), *Buddhism after Patriarchy: A Feminist History, Analysis, and Reconstruction of Buddhism*, Albany: State Univ. of N.Y. Press, p.128.

31) Diana Paul(1980), “Portrait of the Feminine: Buddhist and Confucian, Historical Perspectives”, *Studies in History of Religion*, ed. A. K. Navain, Delhi: B. R. Publish Co., pp. 209-217 참조

을 완전히 제외하는 협소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이리가라이의 성차의 윤리학은 성차 안에 있는 “여성적인 것(the feminine)”을 상징함으로써 전통적 젠더 규정의 여성다움(the femininity)을 대치하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이원론적 젠더 구분의 이원론적인 틀 속에 머물러 있으며, 또 하나의 다른 본질주의에 빠지지 않는가 하는 의혹과 비판에 직면한다.

이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길은 원효의 일심 사상의 공관(空觀)에서처럼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이 상호 대립하는 전적인 타자들로서 이원론적으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르면서도 서로 의존하는 이중성의 대대관계(待待關係)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제3의 매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리가라이는 그의 소위 ‘감성적 초월자’(Sensible Transcendental)로서의 “여성적인 것”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원론적 대립항의 한편인 성을 가진 보편자이자 한 성에 한정된 보편자로서 “여성적인 것”에게 제3의 매개의 역할을 담당시키는 것은 이론상의 무리를 내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원효의 일심 사상의 공(空)의 입장, 다시 말해서 대립하는 두 항의 양쪽을 모두 부정하면서 또한 함께 긍정하여 생사 즉 열반, 부처 즉 중생으로 연결하는 이사무애(理事無碍), 사사무애(事事無碍)의 지혜로부터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무애로운 대승 불교적 공 사상의 즉(卽)의 논리와 만남에서 이리가라이가 말하는 소위 여성적인 것의 논리, 또는 “액체의 논리(logic of fluid)”³²⁾가 참다운 유연성의 논리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원효의 일심 사상과 이리가라이의 성차의 윤리학 사이의 만남이 양측의 자기완성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원효는 이리가라이의 성차의 윤리학에서 불교가 여성의 불행한 현실에 보다 더 심

32) Ann Caldwell(2002), “Transforming Sacrifice : Irigaray and the Politics of Sexual Difference”, *Hypatia*, vol. 17, no.4 (Fall), p17; pp.23-24.

각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자기 비판적 깨달음을 얻을 것이고, 이리가라이는 원효에게서 사유의 무한히 열려진 지평과 심오하고 조화로우며 무애로운 삶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원효와 이리가라이가 공유하는 만남의 철학에 합치하려면, 두 사상의 만남이 서로의 사상을 동화하거나 절충하여 통합하는 만남이 아니라 양측이 서로 상대방의 완성을 서로 돕는 상호적 협동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방식이야말로 두 사상이 함께 지향하고 있는 화해와 조화의 윤리적 이념에 일치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원효의 일심의 윤리학과 이리가라이의 성차의 윤리학은 오늘의 다문화적 지구적 시대가 요구하는 긴요한 윤리적 통찰들을 보여준다. 특히 이 두 개의 윤리 모델이 공유하는 화해와 조화의 원리는 앞으로 전 세계의 다양한 페미니즘 운동들이 함께 지향해 나가야 할 공동의 지평을 제시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리가라이는 여성 해방 운동을 보편적, 지구적 공동 전선과 지역적, 개별적 전선의 두 차원에서 이원화함으로써 다양한 개별적, 지역적 운동의 차원들을 차별화하면서 동시에 통일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³³⁾ 그러나 그와 같은 견해가 성립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 첫째로, 보편적, 지구적 공동 전선과 지역적, 개별적 전선들 사이에 장애 없는 원융한 통일이 수립될 수 있어야 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통일의 경계를 이사무에 법계(理事無碍法界)라고 한다. 그리고 둘째로, 보편적 지구적 공동체안에서 개별적, 지역적 전선들 사이의 상호인정에 기초한 조화로운 공존과 협동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조화로운 공존의 상태를 사사무에 법계(事事無碍法界)라고 한다.

원효는 그의 일심 사상에 기초하여 다양한 진리 주장들 사이의 조화와 통일을 성취하는 그의 소위 화쟁(和諍)이론을 세웠다. 원효의 화쟁은 하나의

33) Diana J. Fuss(1989), "Essentially speaking": Luce Irigaray's language of essence', *Hypatia* 3(3), Winter, pp. 62-80.

근원에서의 통일을 전제로 하는 다원주의적 진리 관, 또는 진리의 다원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³⁴⁾ 원효의 화쟁적 다원주의적인 진리관은 한편으로는 서로 모순 대립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모두 유한하고 불완전한 것임을 밝히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입장들이 하나의 근원으로 귀일될 수 있는 것임을 제시하는 두 측면을 지닌다. 다시 말하면, 원효의 화쟁은 일심의 각(覺)체험에 관한 모든 언설이 옳지 않으면서, 또한 옳다고 하는 관점에서 상호 대립하는 이론들 사이의 쟁론을 화해시킬 뿐만 아니라, 일심에 관한 모든 견해들이 동일한 각의 경지를 가리키는 손가락들로서 일리가 있는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원효의 화쟁은 모순 갈등하는 페미니즘 이론들 사이의 쟁론들을 화해시키고 회통시키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효과적인 통찰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슈와브는 이리가라이의 성차모델(sexual difference model)이 버틀러의 젠더해체모델(undoing gender model)이나 해러웨이의 사이보그로봇모델(cyborg robot model)보다 더 보편적인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녀는 특별히 이 세계의 많은 여성들이 그들의 여성적 정체성과 남자들과의 관계를 포기하기를 원치 않고 있고, 어떤 문화 안에서는 젠더 관계의 변화를 원하는 경우에도, 서구의 백인 전문직 여성들의 페미니즘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정치적 경제적 사정 때문에 그와 같은 불편부당한 관계들을 포기하거나 그들의 현실적 조건들을 수정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경우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³⁵⁾ 이와 같은 입장에서 그녀는 “현실적 존재로서의 여성과 남성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 여성들끼리의 관계 및 남성들과의 관계 안에 있는 여성들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관계들을 개선하는 것에 관하여 생각하고, 이러한 관계들을

34) 신 옥희(2007), “원효와 야스퍼스의 진리 관”, 『원효학 연구』 제12집, 별쇄, 116쪽.

35) Gail Schwab(1998), “Sexual Difference as Model; an Ethics for the Global Future”, *Diacritics* (28)1, Spring p.78.

하나의 새로운 윤리학 안에 기초지우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정치와 이론을 위한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³⁶⁾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들에서 그녀는 이리가라이의 성차의 윤리학을 지구적 미래를 위한 윤리적 기초 이론으로서 추천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실, 이리가라이도 자신의 성차의 원리가 범지구적인 보편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종적, 종교적, 계급적, 정치적 차이 등 모든 종류의 차이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은 그녀의 입장의 타당성 여부에 상관 없이 그녀 자신의 고백처럼, 그녀의 사상이 자기 자신이 속한 특수한 문화와 시대의 산물로서 한정성과 특수성을 띄고 있는 한에서 그녀의 성차의 페미니즘은 그녀가 말하는 페미니즘 운동의 공동 이념으로서 무애로운 보편성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제약성과 한계는 버틀러의 젠더 페미니즘이나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페미니즘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각각 특수하고 다양한 페미니즘 모델들은 이리가라이가 말하는 페미니즘 정치학에서 특수한 지역적 투쟁 전략들 중의 하나로서 매우 큰 유효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효의 일심의 윤리학과 성차의 윤리학 사이의 비교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두 윤리 체계를 공통적으로 특징 지우고 있는 화해와 조화의 윤리학은 앞으로 다가올 다문화적 지구적 미래를 위한 새로운 페미니즘 운동의 보편적 이념적 지평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폭넓은 시야와 넉넉한 융통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원효의 일심의 윤리학과 이리가라이의 성차의 윤리학 속에 함의되고 있는 바와 같은 화해와 조화의 윤리학을 오늘날 이미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는 다문화적 지구시대를 위한 여성주의 윤리학의 하나의 공동 이념으로 삼을 수 있다면, 다양한 여성운동의 파트너들이 서로를 방해함 없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열려진 세계 공동체의 실현이 가능할

36) *Ibid.*, p.78.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리가라이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양하고 이질적인 지역적 투쟁 전선들 사이의 분열과 대립을 지양하고 통일할 수 있는 어떤 공동의 투쟁 이념이 없으면, 페미니즘 운동은 소통 없는 내분과 갈등 속에서 지리멸렬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운동을 전체적으로 조화시키고 활성화해야 할 공동 전선의 지도 이념이 지역적 개별 전선을 전체주의적으로 구속하고 통제하려 하거나 강제적으로 획일화하려 한다면, 특수한 지역적 전선들은 창조적 활력을 상실하고 무기력한 침체 상태에 빠지게 될 것 같다.

원효의 화쟁의 해석학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은 대승 불교적 깨달음의 공(空)의 지혜에 근거하여 서로 대립하는 이론들 사이의 이사 무애 적이고 사사 무애 적인 화해와 통일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물론 화해와 조화보다는 대결과 투쟁이 필요한 전선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효의 일심 사상에서 화해란 대립이 없는 공존이 아니라 대립을 상관적 차이로, 대립의 관계가 아닌 대대의 관계로 변화시키는 무애 로운 지혜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조화”는 서로 간에 무관심한 공존이 아니라 타자의 이익과 완성을 위해서는 범계(犯戒)나 일탈도 불사하는 이타적 자비 행의 능력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그러한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문화적, 시대적 제약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리가라이의 성찰의 윤리학은 남과 여 사이의 상호 존중과 조화로운 협동, 여자들끼리의 상호 인정과 사랑, 문화적 전통이 서로 다른 세계의 민족들과 인종들 사이의 차이,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 상황의 차이들을 서로 배려하면서 이루어지는, 인류적 차원에서의 화해와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오는 다문화적 지구적 미래의 페미니즘 운동의 발전에 공헌할 점이 크다고 본다. 특히, 이리가라이의 성찰의 윤리학을 기초지우고 있는 타자의 철학은 높이 평가되어야 하고 페미니즘 운동의 미래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지혜로서 페미니즘 이론 속에 수용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Caldwell, Ann (2002), "Transforming Sacrifice : Irigaray and the Politics of Sexual Difference", *Hypatia*, vol. 17, no.4 (Fall).
- Fuss, Diana J. (1989), "Essentially speaking" : Luce Irigaray's language of essence', *Hypatia* 3(3), Winter.
- Gross, Rita (1993), *Buddhism after Patriarchy : A Feminist History Analysis and Reconstruction of Buddhism*, Albany: State Univ. of N.Y. Press.
- Irigaray, Luce (1984), *Ethique de la difference sexuelle*, Les Editions de Minuit.
- _____ (1993), *An Ethics of Sexual Difference*, trans. Carolyn Burke and Gillian C. Gill, The Athlone Press.
- _____ (1985), *This sex which is not one*, trans. Catherine Porter, Cornell University Press.
- _____ (1992), *Jaime a toi*, Editions Grasset & Fasquelle.
- _____ (1996), *I love to you*, trans. Alison Martin, Routledge.
- 뤼스 이리가라이 지음, 이 은민 옮김(2000), 「동양과 서양 사이(Entre Orient et Occident)」, 동문선.
- 뤼스 이리가라이 지음, 이 은민 옮김(2000), 「하나이지 않은 성」, 동문선.
- Keown, Damien (1992), *The Nature of Buddhist Ethics*, Macmillan.
- Pengcheah and Elisabeth Grosz (1998), "The Future of Sexual Difference : An interview with Judith Butler and Drucilla Cornell", *Diacritics* (28)1, Spring.
- Schwab, Gail (1998), "Sexual Difference as Model ; an Ethics for the Global Future" *Diacritics* (28)1, Spring.
- Stone, Alison (2006), *Luce Irigaray and the Philosophy of Sexual Differ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hitford, Margaret (1991), *Luce Irigaray : Philosophy in the feminine*, New York & London: Routledge.
- 김 형효 지음(2006), 「원효의 대승 철학」 소나무.

- 신 옥희(2007), “원효와 야스퍼스의 진리 관”, 『원효학 연구』 제12집 별쇄, 원효학연구원.
- 심 재열(1983), 『원효사상』 2, 윤리관, 흥법원.
- 육 정배 역주(1984), 「유마경(維摩經)」, 삼성문화문고.
- 은 정희 역(1991), 「원효의 대승기신론 소·별기」, 일지사.
- 이 기영, “원효의 윤리관” - 「보살계 영락 본업 경」을 중심으로, 김 지건 편, 『원효 사상의 철학 세계』, 대한전통불교연구원.

〈Abstract〉

Ethics of Reconciliation and Harmony

- As an Idea for the Multi-cultural Global Future

Shin, Ock Hee (Ewha Womans University)

In this paper, an ethics of reconciliation and harmony is presented as a valuable feminist vision for the multi-cultural global future. As an oriental model of such ethics, Mahayana Buddhist ethics of the One Mind(一心) of Korean Buddhist Philosopher Wonhyo(元曉) is introduced, and as a Western model, Feminist Philosopher Luce Irigaray's ethics of sexual difference is selected. In this paper, an encounter between these two ethical models is attempted, and theoretical and practical benefits, which this encounter will bring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feminist movements, is accounted.

At first glance, Irigaray's ethics of sexual difference seems incompatible to the Buddhist ethics of the One Mind that points to non-duality or non-differentiation. Contrary to the surface image, however, both have commonalities much more than differences.

The most prominent feature that connects closely these two models of ethics is the common attitude of recognition and respect for the differences and dissimilarities. And also, the two models of ethics emphasize in common the ethical practice of love and compassion which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reconciliation and harmony.

In this paper, it is argued that the ethical principle of reconciliation and harmony, which is shown in common in the two models of ethics, can provide a very significant feminist vision for the multi-cultural global future, and also shall open a valid common horizon for the multiple streams of the worldwide feminist movements. Furthermore, it is expected also that, if the ethical principle of reconcilia-

tion and harmony is taken as a common idea, it will be possible to establish a worldwide open community in which all the partners of multifarious different streams of feminist movement can pursue their ends with no hindrance.

논문투고일: 2011년 10월 23일

심사일: 2011년 11월 12일

게재확정일: 2011년 11월 16일

